

『刪繁方』의 복원에 관한 연구

-『外臺秘要』, 『千金方』, 『醫心方』을 중심으로 한 『刪繁方』의 서지학적 연구-

金度勳·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A bibliography on the 『Sanbeon-bang』

Kim Do-Hoon, Jeong Chang-Hyun

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is mainly on the Restoration(to the original state) of 『Sanbeon-bang(刪繁方)』. In this study, I got following bibliographical results.

The Author of 『Sanbeon-bang』 is indistinct, who supposed to be the person of Nambugjo-era. And he belonged to Jepa-medical man. The meaning of 『Sanbeon-bang』 is get rid of troublesomeness and take simplicity. And it supposed to be written at the close of Yug-Jo-era. 『Sanbeon-bang』 has the comments of medicine, as well it has the prescriptions. The number of volume of the 『Sanbeon-bang』 is not clear yet, but it is about 10. By the survey of the contents, we can understand the 『Sanbeon-bang』 comes to the points of the typical deficiency syndromes of JangBu. For that reason, GyojeongUiseogug of Bug-Song government may take it as the text of correction.

Key words: 『Sanbeon-bang』, 『OedaeBiyo』, bibliography.

I. 緒論

과거의 문헌에 대한 수집 및 재편집 그리고 복원작업은 여기까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문헌이 가진 생명력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한편 이는 이미 사라져버린 문헌에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이므로 현재를 바

탕으로 진행되는 연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모아지고 복원된 원형의 자료를 통해서 원래 그 문헌이 성행했던 시기의 문화가 어떤 특징적 모습들을 띠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黃帝內經』을 기본으로 하는 原典學 연구에 있어서, 唐代 책이 만들어진 이후로 『內經』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王冰¹⁾의 『次

* 교신저자 : 정창현,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jeongch@khu.ac.kr, Tel : 02-961-0337

1) 王冰 : 중국 당나라 때의 의학자로 호는 “啓玄子”이다. 일찍이 太僕令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素問』이 “세상에 떠도는 판본에 잘못된 곳이 많고, 편목이 겹

注黃帝內經素問』과 동일 시대에 정리된 문헌인 『外臺秘要』²⁾을 비교해 보는 작업은 『內經』이 가진 원래의 모습을 탐구하는 한 방편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刪繁方』은 실전된 책으로 현재 남아있는 한의학의 문헌 가운데 『外臺秘要方』에 가장 많은 조문³⁾이 산재해 있고, 아울러 『外臺秘要方』과 비교해서 약 100년가량 앞서 이루어진 孫思邈의 『千金方』과, 약 200여년 후에 책이 만들어진 일본의 丹波康賴의 『醫心方』 등의 세 문헌에 현재 남아있는 조문의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다⁴⁾. 따라서 『外臺秘要方』과 『千金方』

』 그리고 『醫心方』에 실린 『刪繁方』의 조문을 통해서 원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는 재구성해 볼 수 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刪繁方』이 출현하던 당시의 모습을 역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外臺秘要』에 인용된 『刪繁方』은 현재 비록 실전된 책이지만, 北宋代 嘉祐 연간(1056~1063)에 송대 校正醫書局에서 『外臺秘要』를 비롯한 『千金要方』, 『千金翼方』 등의 醫書들의 인용과 교감의 자료로 쓰인 문헌으로, 여기에 기재된 醫論들은 현재 이해되는 『黃帝內經』의 醫論들과 동일한 사상적, 역사적 궤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刪繁方』의 원형을 살펴보는 연구는, 비록 전체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黃帝內經』의 醫論의 원형을 살펴보는 데 보다 나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刪繁方』의 복원에 관한 연구 작업의 하나로, 『刪繁方』의 서지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론하여 본 책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차후 『刪繁方』의 복원을 위해서는, 이 책이 산재한 『外臺秘要方』, 『千金方』, 『醫心方』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刪繁方』이 담고 있는 의론의 번역과 『次注黃帝內經素問』과의 비교고찰, 처방과 약물 등의 특징에 대한 분석과 같은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II. 本論

1. 『刪繁方』이 만들어지고 전해진 시대적 배경

1) 정치사회적 배경

『刪繁方』이 이루어진 시기는 南北朝時代⁵⁾이

5) 南北朝時代는 서기 420년에 東晉이 멸망하고부터 589년 隨나라가 남북을 통일하기까지의 170년 사이, 東晉16국에 이어 南北정권이 대치한 시기이다. 이 시기 南朝는 420년 劉裕가 썸을 멸망시킨 시기로부터 589년 썸이 망할 때까지 宋(420~479), 齊(479~

치며, 앞뒤로 순서가 맞지 않아서, 문장의 뜻이 원뜻과 멀어지게 되었다.(世本紕繆, 篇目重疊, 前後不倫, 文義懸隔.)"라고 보아, "정성스럽게 힘쓰고 널리 찾기를 12년 동안을(精勤博訪, (并有其人), 歷十二年.)" 하고, "새로 발견한 卷들을 아울러, 합하여 81편으로(兼舊藏之卷, 合八十一篇)"하여, 762년에 『注黃帝素問』 24권을 편찬 완성하였는데, 이는 6세기 宋元起가 『黃帝素問』을 주석한 뒤로 다시 한번 정리 주석한 것으로 세칭 『次注黃帝素問』이라 한다.

2) 『外臺秘要』: 중국 당나라 王勣가 752년에 편찬한 의서. 전 40권. 이 책은 당나라 초기와 그 이전의 의학서를 수집한 것이다. 自序에서도 "무릇 古方に 관해서는 50~60家の 著作을 모았고, 새로 편찬된 책들도 수백 수천 권에 이른다.(凡古方纂得五, 六十家, 新撰者向數千百卷)"라고 하였는데, 이를 편집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모두 1104門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먼저 의론을 논술하고 다음으로 처방을 열거하였는데, 의약 처방 약 6천여 方이 실려 있다. 내용이 광범위하고 박식하며 책 중에 인용한 참고 서적은 모두 출처를 부기하고 있어서 중국 당나라 이전의 의학을 연구하는 데에 상당한 참고가 된다. 1069년에 北宋 校正醫書局에서 교간하였으며, 1640년에 또 程行道가 교정하였다. 현재 영인본이 나와 있다.(『東洋醫學大事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9.)

3) 宋版 『外臺秘要方』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모두 133門에 걸쳐서 표제어로 198조문(부방-"又-方"의 형태로-으로 88조문 포함), 부가어로 51조문, 할주에서 2조문에 걸쳐 보인다. 程本을 기준으로 하면, 宋版에 비해 표제어 1조문, 할주 1조문이 적게 나온다.

4) 이 세 문헌 이외에 『刪繁方』의 내용이 수록된 문헌으로는 『本草圖經』, 『證類本草』, 『本草綱目』, 『普濟方』 등과 우리나라의 『醫方類聚』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책에 인용된 경우는 거의 『外臺秘要方』과 『千金方』을 통한 재인용으로 판단된다.

다. 남북조시대는 중국역사상 장기의 정치적 암흑시기였으나, 종교, 사상, 예술, 문화 분야에서 중국사상 보기 드문 찬란한 시대였다. 표면적으로는 胡族들의 전성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漢族에 의한 江南의 개발, 북방민족의 漢化운동 시대였으며⁶⁾, 이는 역사적인 배경, 사회 환경 및 사상문화 등 여러 요인이 종합하여 형성되었다.

한편 本稿에서 다루는 『刪繁方』의 산재문헌이 이루어진 시기는 주로 唐代이다. 당나라 초기에 법제가 완비되어 중국 왕조사의 황금시대인 “貞觀의 治”(627~649)를 이루었고, 唐 玄宗은 “開元の 治”(713~741)로 최전성기를 맞았는데, 국가 운영에서 기본이 된 균전제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가 감소하였고, 蒙族들의 토지경병이 성행하자 부병제 역시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755년 안록산이 난을 일으켜, 북중국은 약 7년 동안 대란에 휩쓸렸으나 762년에 평정되었다. 경제의 중심지인 강남은 피해를 입지 않아 당은 잔잔히 명맥은 유지하였으나, 이 난으로 당은 쇠망기로 접어든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千金方』, 『外臺秘要方』 등의 책이 완성된 것이다.

당대는 정치적으로는 北朝를 계승하였고, 문화적으로는 南朝의 漢民族의 전통을 동경하여 귀족문화를 이룩하였다. 당은 그 문화가 세계적이고 국제성을 갖는 문화였기에 주위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에, 일본에는 奈良時代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였다⁷⁾.

502), 梁(502~557), 陳(557~589)의 4대 왕조가 교체되었고, 北朝는 439년 北魏가 五胡十六國의 혼란스런 북방을 통일한 시기부터 534년에 東魏, 西魏로 분열되기까지이고, 후에 東魏가 北齊로 교체되고 西魏가 北周로 교체되었으며, 北周 또한 北齊를 멸망시켰고, 581년 北周 또한 隨로 교체되었다. 隨는 陝과 後梁을 멸망시켜 南北이 대치된 국면을 끝내고 전국을 통일하였다.(廖育群, 傅芳外, 朴炫局 外 譯, 中國科學技術社, 서울, 一中社, 2003, p. 371.)

6)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 104.

2) 의학발전의 배경

兩晉에서 隋唐에 이르기까지의 의학발전의 주요특징이라면, 임상의학에서의 풍부한 경험의 누적이다. 疾病의 인식, 醫方의 창조, 新藥의 발견 등의 측면에서 진보가 있었으며 특히,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 임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醫案 형태⁸⁾로 된 “方書의 대량출현”은 이 시기 의학발전의 주요특색이다. 중국 고대의 醫學방서는 치료방제를 위주로 하는 저작물로 혹 藥方만 있고 의론은 없으며, 혹 의론이 있고 藥方도 있다. 내용은 內外各科의 치료법을 아울러 수용하고 있거나, 혹 임상에서의 간여한 單方을 수록하고 있다⁹⁾.

다만, 진단 및 기본이론은 크게 진전이 없었는데, 이런 정황은 『隨書 經籍志』에 실린 醫學書目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⁰⁾. 이 외에 唐代에 가장 중요한 저작인 千金방과 외대비요의 구체적 내용을 고찰하여 보아도 역시 이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이 두 책은 대량으로 구체적인 藥方을 실고, 진단과 이론방면의 서술은 비중도 적을 뿐만 아니라, 『內經』과 『難經』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藥方과의 유기적 관계를 말하지 않았다¹¹⁾.

7) 洪元植, 前掲書, p. 105.

8) 醫案은 辨證施治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 症狀, 病因, 病機, 脈象, 舌象, 診斷, 治法, 方藥, 劑量 등을 기술하고 여기에 간단한 분석과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임상기록이다. 의안의 초기 형태는 『左傳』에서 醫師 醫援과 醫和가 晉侯를 치료한 기록으로부터, 『史記』, 『三國志』 등의 역사서에 등장한다. 晉唐 시기에 이르면 가치가 높은 의안이 많이 나왔는데, 葛洪의 『肘後備急方』, 孫思邈의 『千金方』, 王燾의 『外臺秘要方』 등에 수록된 의안들이 그것이다.(金南一, 「醫案이란 무엇인가」, 醫林 No.309, 5, 콤포시, 2004, p. 86.)

9)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157.

10) 『隨志』는 모두 256部 4510卷을 실고 있는데, 養生, 練鐵, 食經, 療馬 등을 제외하면 醫書는 모두 3953권이고, 醫方書는 3714권에 달하여 94%에 가깝다. 그러나 기본이론은 겨우 9부 51권으로 『五臟論』과 『巢氏病源』 두 종류 이외에는 모두 『內經』, 『難經』 등 과거의 저작이다. 진단방면에 관련된 저작도 겨우 10부 29권뿐이다. 이러한 정황은 『新舊唐書 藝文志』에도 마찬가지이다.(洪元植, 前掲書, p. 108.)

아울러 이 시기에는 石藥의 복용이 유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이른바 解石散류의 약방이 나오게 되었다. 한편 東晉의 남하로 많은 사대부들이 江南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脚氣”라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이 방면의 처방이나 방서가 나타났다.

한편 시기에는 약물방면의 발전이 비교적 현저하여, 本草書가 대량으로 출현하고¹²⁾, 약물품종이 증가 하였으며 약리학설이 발달했다¹³⁾.

2. 『刪繁方』의 저자

『刪繁方』 혹은 『刪繁』은 『隨書·經籍志』에 나오는데, “刪繁方, 十三卷, 謝士泰撰.”라고 되어 있다. 『舊唐書·經籍志』, 『新唐書·藝文志』에 모두 “謝士泰撰”이라고 되어 있다. “太”와 “泰”는 通用으로 의심컨대 『隋志』의 “泰”은 바로 “泰”字的 오류인 것 같다. 『日本國見在書目』에는 “謝云泰”라고 되어 있는데, “云”은 바로 “士”자의 오류이다. 그러나 宋臣 林億 등은 『新校 備急千金要方』序에서 또한 “謝士泰”이라고 하였는데, “泰”인지 “泰”인지 아직 결정짓기에는 어려우므로, 우선 통설을 좇아서 “謝士泰”라고 한다.¹⁴⁾

- 11) 이런 정황은 직접적으로는 종교(佛敎, 道敎), 미신의 풍조가 성행한데 연유가 있다. 당시 葛洪, 陶弘景, 孫思邈 등도 養生, 鍊鍊, 採藥, 求仙 등에 열중했던 도교나 불교계의 인물이었다.(洪元植, 前掲書, p. 109.)
- 12) 陶弘景의 『本草經集註』는 원래 365종이던 것을 700여종으로 늘렸고, 당대 『新修本草』에서는 850종으로 증가하였다. 기타 이미 실전되었으나 陳藏器的 『本草拾遺』는 송대의 『證類本草』로 옮겨 기록된 것이 500여종에 달한다.(洪元植, 前掲書, p. 112.)
- 13) 약물의 품종이 증가되는 원인은 중국내에서 스스로 많은 새로운 약물을 발견하기도 하였지만, 서역각국으로부터 들어온 약물의 수도 적지 않다.(洪元植, 前掲書, p. 112.)
- 14) 본 내용은 현재 『外臺秘要』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高文鏞의 『外臺秘要方』文獻研究(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 970~972.)와 高文鏞가 主編하고, 谷田伸治 등이 집필한 『醫心方』文獻研究(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p. 651~821.)를 바탕으로 하고 보충하였다.

“謝士泰”는 증명할 만한 사료가 없으며, 평생의 년도를 상고할 길이 없고, 일반적으로 단지 六朝時代¹⁵⁾ 사람이라고 몽땅그려서 말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면 아마도 謝氏는 南北朝時期的 사람이다.

『外臺秘要』에서 인용한 『刪繁』의 유실된 문장을 살펴보면, 『刪繁』의 저작시기 이전 사람들의 저작은 모두 셋인데, 이는 扁鵲, 倉公, 華佗이며, 그 중에서 扁鵲을 인용한 것이 비교적 많다¹⁶⁾. 이는 『千金方』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千金方』에서 인용된 扁鵲佚文들의 작자는 魏晉六朝시대의 “扁鵲學派”의 계승자이다¹⁷⁾. 扁鵲은 “齊

15) 六朝時代 : 중국 3국시대 吳·東晉 및 南朝의 宋·齊·梁·陳을 합한 시대. 모두 南京을 國都로 하고, 揚子江하류의 揚州를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삼았으며, 荆류의 荊州를 군사상의 요지로 삼아 華北의 정권과 대항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위진남북조시대와 거의 같은 시간·공간을 포함하는데, 원래 귀족 문화(공중문학·書道·繪畫 등)가 왕조를 달리하면서도 통일성을 지녔기 때문에 문화사적 시대 구분에 쓰인다.(네이버 검색)

16) 中國醫籍考에서 “『外臺』에 실린 『刪繁方』의 ‘六極論’은, 『難經·二十四難』의 글을 인용하고, 아울러 ‘扁鵲曰’이라고 일컫는다. 『難經』의 글과 그 글은 비록 서로 조금 다르지만, 모두 『難經』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隨誌』를 살펴보면, 『刪繁方』十三卷, 謝士泰撰이라고 하였다. 이는 謝士泰가 隨나라 이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難經』이 越人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楊玄操에게서만 창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外台』載『刪繁方』六極論, 引二十四難文, 并稱扁鵲曰. 其文雖稍異, 而并似原于是經. 考隋志, 載『刪繁方』十三卷, 謝士泰撰. 是士泰系于隋以上人, 則是經屬之于越人者, 不特創于楊玄操.”(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 63)라고 하였다.

17) 그 중에는 물론 周秦시기 이전의 扁鵲, 魏晉六朝시기 이전의 “扁鵲學派”의 전승자, 戰國시기 秦越人 扁鵲의 학술적 관점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하여 蘇禮는 “扁鵲名實考略”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① 扁鵲은 본래 상고시기의 전설상 혹은 신화 속의 인물로 후대에 이어져서 周秦시기에 이미 ‘고명한 의사’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② 司馬遷이 쓴 扁鵲은, 戰國시기 말에 『難經』을 쓴, 扁鵲이라고 일컫어지는 渤海의 名醫 秦越人の 생애와 사적이 소개가 되었으며, ③ 동시에 先秦시기 그 외 扁鵲이라고 일컫어진 명의의 일화에서 가공된 고대의가의 형상이다.(蘇禮, 『千金要方』所引扁鵲佚文及其學術價值, 醫古文知識

派”의학의 창시자이며, 倉公과 華佗는 모두 扁鵲學派의 계승자인데, 의학유파로 말하자면, 謝氏는 “齊派” 醫家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刪繁方』의 名義

『刪繁』의 명칭과 뜻은, 번잡한 것을 깎아내고 간략함을 취한다는 뜻이다¹⁸⁾. 바로 孫思邈이 말한바 “여러 의학 경서를 널리 채집하여, 번잡하고 중복된 것들을 깎아 버리고, 간이함에 힘쓴다.”¹⁹⁾는 것으로 그 목적은 당연히 실용적인 것을 힘써 구하는 것이다.

일찍이 서기 501년에, 北魏정부도 또한 醫官을 조직하고 이런 작업을 하였는데, 『魏書·世宗本紀』에 근거하면 “經方이 호변하고 방대하여 이리 저리 흘러 다니는 곳이 많아서 病에 임해서 藥을 투여하므로 갑자기 그 내용을 자세히 연구하기 힘들다. 이에 담당관원에게 명령하여 여러 醫工들을 모으게 하여, 편차를 찾고 간략함을 추구하여 정밀하고 요약됨을 힘쓰게 하였다”²⁰⁾라고 하고, 精方 32권을 친하여 頒布하였다. 따라서 당시 호변했던 經方書에서 좀 더 실용적이고 실제 임상에서 적용이 가능한 책을 편찬하는 추세를 따라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刪繁方』의 인용문헌을 통해 살펴 본 간행년대

No. 55期, 上海, 上海中醫藥大學, 1997, pp. 29~30.)
 18) 이런 의미에서 歷代로 “刪繁”이라는 명칭이 醫書에 등장한 경우는, 『刪繁方』 13권(南北朝, 謝士泰), 『刪繁本草』 5권(唐代, 楊損之), 『刪繁藥脈』 3권(宋代, 王承宗), 『刪繁藥詠』 3권(唐代, 汪承宗) 등이 있다. 이 책들은 현재 모두 실전되었고, 『刪繁方』 외에 『刪繁本草』는 本草書에서 더러 인용되고 있다.(각 항목 何時希 著, 中國歷代醫家傳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참조)
 19) 『備急千金要方』自序: “博采群經, 刪繁裁重, 務在簡易”
 20) “經方浩博, 流傳處廣, 應病投藥, 卒難窮究. 更令有司, 集諸醫工, 尋篇推簡, 務在精要”

전술한 바와 같이 謝氏는 “齊派” 醫家의 한 사람으로 “扁鵲學派”에 속하는데, 『刪繁方』에서 그는 扁鵲佚文들을 통하여 진원인 편작과 관련한 학술자료를 남겼고 魏晉六朝시기 이전의 病理學, 診斷學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²¹⁾

宋臣 林億 등이 『備急千金要方』을 교정할 때 “臣 등의 재주가 박식다문하다고 일컬어지기는 부족함이 있지만, 말은 일이 오로지 의서를 교감하는 일을 담당하였기에, 『道藏』의 別錄과 공적, 사적인 여러 판본들을 몇 차례나 찾아보고 탐구하여, 그 잘못됨을 바로잡고 유실된 것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글이 중복된 것을 깎아내고, 일에 순서가 없는 것은 정리하여 차례를 편집하고 부류별로 취합하여, 期月(1년)만에 공이 이루어 졌습니다. 綱領이 비록 세워졌으나, 글의 뜻은 오히려 의문스럽고 막힘이 있었기에, 근본을 상세히 살펴 말업을 바로잡았으니(본원의 뜻을 상세히 살펴서 말업의 가치를 교정하는 것), 예를 들면, 『素問』, 『九墟』, 『靈樞』, 『甲乙』, 『太素』, 『巢源』, 諸家의 本草書, 前古의 脈書, 『金匱玉函』, 『肘后備急』, 謝士泰의 『刪繁方』, 劉涓子鬼遺論 등의 부류들은, 그 출처에 관계되는 일을 핵심까지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또한 거슬러서 근원을 살폈으니, 이를테면 『五鑿經』, 『千金翼』, 『崔氏藥要』, 『延年秘錄』, 『正元廣利』, 『外台秘要』, 『兵部手集』, 『夢得傳信』 등의 부류에서, 모든 학파에 대해 그 이치를 상고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相互 질정하고, 반복하여 상고하며 살핀 연후에, 유실된 글과 의심스러운 뜻이 환히 모두 밝아졌습니다. 책은 비록 오래되었지만 쓰임은 오히려 새로우니, 가히 만백성을 구제하고, 성스러운 好生의 다스림이 쇠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陛下께서 널리 사랑하는 마음을 돕는다면, 한갓 지극히 太平한 시대가 될 뿐만 아니라, 실로 皇極께서 下賜하신 福을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校勘

21) 蘇禮, 『“千金要方”所引扁鵲佚文及其學術價值, 醫古文知識 No. 55期, 上海, 上海中醫藥大學, 1997, p. 30.

작업이 끝남에 그 원본을 손질하고 베껴서 삼가 바치나니, 바라옵건대 대략이나마 친히 살펴보옵소서. 太子右贊善大夫臣高保衡。尚書都官員外郎臣孫奇。尚書司封郎中充秘閣校理臣林億。尚書工部侍郎兼侍講臣錢象先謹上。”²²⁾이라고 하였는데, “근본을 바로잡아서 말단을 바로잡는-端本以正末” 혹은, “물길을 거슬러서 근원을 탐구하는-溯流以討源”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醫書를 수집하고 교정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상에서 본다면 林億 등이 교정작업에 사용한 두 부류의 책들 중에서, 『刪繁方』은 근본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³⁾.

아울러 여기에서 교감에 사용한 대량의 의서들을 열거한 것을 보면, 전후 시대적으로 대체적인 원칙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은데, 그는 謝士泰의 『刪繁方』을 『金匱玉函』, 『肘後備急』의 뒤, 『劉涓子鬼遺論』의 앞에 나열하였다. 이로써 林億이 이 책을 南北朝時期的 저작이라고 여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현재 『外臺秘要』를 제외하고는, 『刪繁方』을 비교적 많이 인용한 책은 孫思邈의 『千金方』인데,²⁴⁾ 그 이전의 方書들이 『刪繁方』을

22) 『新校備急千金要方序』: “臣等術謝多通, 職專典校。于是請內府之秘書, 探道藏之別錄。公私衆本, 搜訪几遍。得以正其紕繆。補其遺佚。文之重復者削之。事有不倫者緝之。編次類聚。期月功至。綱領雖有所立。文義猶或疑阻。是用端本以正末。如『素問』, 『九墟』, 『靈樞』, 『甲乙』, 『太素』, 『巢源』, 諸家本草, 前古脈書, 『金匱玉函』, 『肘後備急』, 謝士泰『刪繁方』, 『劉涓子鬼遺論』之類。事關所出。無不研核。尚有所闕。而又溯流以討源。如『五鑿經』, 『千金翼』, 『崔氏纂要』, 『延年秘錄』, 『正元廣利』, 『外台秘要』, 『兵部手集』, 『夢得傳信』之類。凡所派別。無不考理。互相質正。反覆稽參。然後遺文疑義。煥然悉明。書雖是舊。用之惟新。可以濟函靈。俾明聖好生之治。可以傳不朽。副主上廣愛之心。非徒爲太平之文致。實可佐皇極之錫福。校讎既成。繕寫伊始。恭以上進。庶備親覽。太子右贊善大夫臣高保衡。尚書都官員外郎臣孫奇。尚書司封郎中充秘閣校理臣林億。尚書工部侍郎兼侍講臣錢象先謹上。”

23) 『刪繁方』원본의 교감작업 결과 『千金方』 교정 당시에 사용한 『刪繁方』과 『外臺』에서 인용한 『刪繁方』 사이에 약간의 출입이 있었다. 동일 계통의 다른 판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한 책에서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²⁵⁾. 따라서 『刪繁』의 저작시기를 보통 六朝시대 후기로 간주한다.

5. 『刪繁方』의 내용으로 본 간행지역

『外臺』에서 인용한 『刪繁』의 조문은 251조²⁶⁾에 달하는데, “脚氣”를 치료한 처방이 별로 없다²⁷⁾. 『醫心方』에서 인용한 『刪繁』의 失傳내용을 살펴봐도 또한 이 방면의 내용이 없다. 孫思邈이 말하기를,

“魏周의 시대에는 아마 이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姚公(姚僧垣. 498~583. 南北朝時代之北周의 醫家)의 『集驗方』에서는 별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고, 徐之才의 『徐王八世家傳效驗方』에서 편찬하고 수록한 것에서도 그에 관한 내용이 없다. 오직 三國이 鼎立하여²⁸⁾ 풍속과 교화가 일

24) 이는 林億의 校語와 『外臺』에서 인용한 『刪繁』의 내용에서 “千金”이라는 주석을 단 부분이 『醫心方』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데서 알 수 있다.

25) 『千金方』卷六 第一 “治雀目術” 조문 아래에 송신의 小字注로 “肘後云, 『刪繁』載支太醫法”이라는 말이 있는데, 송신들이 보았던 『肘后方』은 이미 葛洪의 옛 저작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후대 사람들이 『肘后方』에 첨가한 것이라는 근거가 된다.(高文鑄, 『外臺秘要方』引用書目文獻考略,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p. 998.) 실제 『肘后方』에서는 “刪繁”이 1회 등장하며 본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26) 『外臺秘要方』에서 『刪繁』의 인용조문의 수에 대해서 高文鑄는 252조라고도 하고, 262조라고도 하였다. 小曾戶洋의 조사(小曾戶洋, 宋版『外臺秘要方』所引書名人名等索引, 東洋醫學善本叢書 第八冊, 大阪, 東洋醫學研究會, 1982, p. 220.)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다시 조사하였다.

27) 高文鑄는 단 한 조문도 없다고 하였으나, 『外臺秘要方』의 肉極寒熱의 “小風引湯方”에서 “腰脚痿弱”이라 하였고, 『千金方』卷七에서도 송신의 교주에 “脚弱”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부가어로 나온 부분에서 역시 『千金方』을 인용하면서 下焦脚弱에 越婢湯을 쓴다고 하였으나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모두 肉極, 下焦에 따른 부가주치로 나오는 만큼 주된 내용은 脚弱이 아니다. 아울러, 11세기 말 蕞波의 『脚氣治法總要』가 편찬할 때 자서에서 『刪繁方』을 참고하였다고 하였으나, “脚氣”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치하지 않았고, 서리와 이슬이 고르지 않고 추위와 더위같은 기후가 같지 않았으므로 關西地方과 河北地方에서는 이 병을 몰랐던 것이다²⁹⁾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아마도 謝氏가 北方人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 『外臺秘要』에서 인용한 『刪繁方』의 유실된 문장에서(26권 15조) 肛門을 “通事令史”에 빗댄 말이 있는데, 이것은 門下省의 소속관으로 현재史料에 의하면 南北朝시기에 오직 北齊에 이런 명칭이 있었다³⁰⁾. 그러므로 『刪繁』은 北齊에서 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6. 『刪繁方』의 성격

『外臺秘要』에서 인용한 『刪繁』의 유실문으로 볼 때, 이 책은 다른 六朝시대의 方書와는 성격이 다르다. 六朝시대의 方書는 “앞 세대의 현인들을 높여서 서술한 것-『深師方』³¹⁾이든, “유실된 것을 취합하여 모은 것-『肘后方』³²⁾이든; “스스로 써 보아 效果를 본 것-『百一方』³³⁾이든, “참고해 보아서 效果를 얻은 것-『集驗方』³⁴⁾이든 모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 실용을 중시하고 이론을 경시한 것이다³⁵⁾.

28) 南北朝時代에 北朝는 西魏와 東魏로 나뉘고, 다시 北齊, 北周로 바뀌어서 三國鼎立이라고 비유하였다.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163.)

29) 『備急千金要方』卷七 第一: “魏周之代, 蓋無此病, 所以姚公『集驗』殊不殷勤, 徐王撰錄未以爲意. 特以三方鼎峙, 風教未一, 霜露不均, 寒暑不等, 是以關西, 河北不識此疾.”

30) 通事令史는, 漢代 末에 曹操가 魏王이 되어서 秘書令을 설치하였는데, 魏文帝가 中書令으로 고쳤고, 監司와 通史郎을 두었다. 나중에 후 “通事”라고도 불리며, 후 “通事舍人”이라고도 일컬었고, 왕의 명령과 신하들의 상소문을 담당하였다. “令史”는 漢代에 蘭臺令史, 尚書令史가 있어서 문서를 관장하였다. 隋唐이후에 令史는 品階가 없어졌고, 三省六部 및 御使臺의 저급관원이 되었다.

31) “祖述前賢” 『深師方』을 말한다.

32) 『葛洪肘后備急方』序: “摭拾遺逸”

33) 華陽隱居『補闕肘后百一方』序: “自用得力”

34) 『集驗方』附『姚僧垣傳』: “參校徵效”

『刪繁方』은 이와는 달리, 당시의 醫書가 處方만 있고 醫論이 없으며 醫論만 있고 處方이 없는 형태를 고쳐서, 醫論이 있고 處方이 있어서, 理論과 治法을 모두 중시하였다. 즉 理法方藥을 모두 중시한 것이다³⁶⁾. 더욱이 그 이론부분에 매우 많은 독특한 견해가 있었는데, 불행히 일찍이 망실되었으므로 학술계의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건대 수집과 복원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五臟勞論”, “六極論” 등³⁷⁾은 모두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의학이론이며, 다른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다³⁸⁾. 이는 謝氏가 발명한 이론일 수 있으며, 좀더 주목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醫論으로 여겨진다.

7. 『刪繁方』의 권수와 소실

이 책의 권수에 관해서, 『隨志』에서는 13卷이라고 하였고, 『新·舊唐志』에서는 12권이라 하였으며, 『日本國見在書目』 및 『通志·藝文略』에서는 10권이라고 되어 있다. 『外臺秘要方』에서 취합한 卷數와 목차로 보건대, 王燾가 보았던 판본은 적어도 11권까지는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문헌의 오류인지, 傳本이 달랐던 것인지 알 수 없다.

한편 이 책은 宋代 嘉祐 년간(1056~1063)까지 존재하여 林億 등이 『千金方』, 『外臺秘要』를 교감할 때 모두 이 책을 썼다³⁹⁾. 대략 靖康의 변(1126-1127)⁴⁰⁾ 때 소실되어서, 晁氏의 『郡

35) 高文鑑, 外臺秘要方叢考, 外臺秘要方, p. 928, 1993.

36) 高文鑑, 『外臺秘要方』史料及文獻價值考述,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 1009.

37) 『外臺』 16권에 나온다. 이 醫論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룬다.

38) 『千金方』에 실린 것도 『刪繁』에서 인용하였다.

39) 董汲이 11세기 말 『脚氣治法總要』自序에서 『刪繁方』을 참고하였다고 하였으므로 11세기 말까지는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0) 중국 北宋 欽宗의 靖康 연간(1126~1127)에 수도 東京(현재 河南省 開封)이 金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北宋이 멸망하게 된 사건으로 南宋이 성립하였다. 당시 金나라는 많은 귀중품과 함께 황

齋讀書志』⁴¹⁾, 陳氏의 『直齋書錄解題』⁴²⁾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8. 현존 『刪繁方』의 조문

본 연구에서 宋版 『外臺秘要方』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모두 133首⁴³⁾에 걸쳐서 직접인용(표제어)으로 198조문⁴⁴⁾, 간접인용(부가어)으로 51조문, 할주에서 2조문에 걸쳐서 총 251조문이 보인다⁴⁵⁾. 程本을 기준으로 하면, 宋版에 비해 표제어 1조문, 할주 1조문이 적게 나온다. 이 외에 程本에는 程衍道の 自序에 1회 보인다.

『千金方』에서는 송신의 교주로 9門에서 11조문이 나왔는데, 두 조문만 『外臺秘要方』에서 나오지 않는다. 출전을 밝히지 않은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은 조문을 『外臺秘要方』에서 인용된 『刪繁方』에서 확인하였고, 『千金翼方』도 마찬가지다.

가와 사대부의 大量的의 도서를 가져갔고, 東京城 내의 궁적, 사적인 도서가 텅 비게 되었다(『宋史』 권23의 『欽宗記』에 “爲之一空”이라 하였다). 『宋史』에서 이를 통계하였는데, 太祖, 太宗, 眞宗 때 3327부 39142권이었고, 仁宗, 英宗 때 1472부 8446권이었다. 다음 神宗, 哲宗, 徽宗, 欽宗 네 황제 때 1906부 26289권이었다. 이들은 중첩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므로, 총 6705부 73877권이었는데 이것이 텅 비게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全元起本 『素問』도 소실되었다.(段逸山, 『素問』全元起本研究與輯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1, pp. 29-31.)

- 41) 郡齋讀書志 : 宋代 晁公武가 엮은 도서해설 목록으로 4권이다. 經·史·子·集의 4부를 다시 類로 나누어, 部와 類의 첫머리에 서문을 붙여 책마다 권수, 저자의 약력, 내용의 개요 등을 적었다.(네이버 검색)
- 42) 『直齋書錄解題』 : 宋代的 書目解題로 22권이다. 直齋 陳振孫이 편저했으며 간행 연대는 미상이다. 經·史·子·集의 4부로 분류되어 있다. 清代에 와서 『永樂大典』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책으로 망실된 서적·古書 傳本의 異同, 저자·편자 등이 밝혀져 주목을 받게 되었다.(네이버 검색)
- 43) 首 : “門” 혹은 “篇”으로 볼 수 있다.
- 44) 부방(“又-方”의 형태로)으로 88조문 포함한다.
- 45) 본 연구에서 小曾戶洋의 『宋版『外臺秘要方』所引書名人名等索引』(東洋醫學善本叢書 第八冊, 大阪, 東洋醫學研究會, 1982, p. 220.)을 바탕으로 다시 조사하여, 직접인용에서 한 조문이 빠진 부분을 추가하였고, 간접인용에서 한 조문을 빼고 두 조문을 추가하였다.

『醫心方』에서는 19門에서 표제어 33조, 부가어 2조가 남아 있어서 총 35조문이 보인다. 『刪繁方』⁴⁶⁾과 『刪繁論』⁴⁷⁾을 아울러 썼는데, 같은 책으로 전본계통이 달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外臺秘要方』에 인용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었다.

이상 세 문헌은 『刪繁方』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肘後備急方』⁴⁸⁾의 조문(1조문이 나온다)은 직접 인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肘後備急方』은 원본에 비해 후대에 많이 변형되었으므로 확정할 수는 없다⁴⁹⁾.

『中國醫籍考』에 3회, 『靈樞識』에 8회, 『本草綱目』에 9회⁵⁰⁾, 『普濟方』⁵¹⁾에 14회⁵²⁾ 등이며

- 46) 모두 열 곳에서 『刪繁方』을 인용하였는데, 卷六, 卷十七, 卷十八 등에 나누어져 보인다.
- 47) 모두 일곱군데 『刪繁論』을 인용하고 있는데, 卷一卷四, 卷五, 卷七, 卷十一, 卷十五, 卷十九 등에 나타난다.
- 48) 『肘後備急方』 : 중국 晋나라 葛洪이 편찬한 方書. 『肘後方』이라고 약칭하며 전 8권이다. 3세기경에 이루어진 이 책은 작자가 편찬한 『玉函方』(100권)에서 구급 의료에 쓰이는 실용적인 驗方 및 간단한 灸法을 뽑아 편집한 것이다. 처음에는 『肘後救卒方』 또는 『肘後卒救方』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후에 梁나라 陶弘景이 101방을 증보해서 『補闕肘後百一方』으로 개명하였다. 그 후 晉나라 楊用道가 『證類本草』 중에서 뽑은 單方을 덧붙여 『附廣肘後方』이라 이름한 것이 현존하는 『肘後備急方』이다.(東洋醫學大事典 참조)
- 49) 앞서 『外臺秘要方』의 서지사항에 대한 연구에서 각주로 밝혔다.
- 50) 處方에서 8회 나오며, 이 가운데 6회는 『外臺秘要方』에 나오고 있다. 아울러, 李時珍은 「序例第一」 卷上 序例上 “引據古今醫家書目”에서 『本草綱目』에서 인용한 책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는 陶弘景 이하로 唐宋의 여러 本草書에서 인용한 의서는 모두 84家인데 唐慎微가 많다고 했으며, 여기에 『刪繁方』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자신이 인용한 것은 이 옛 책들을 제외하고 277家를 인용한 것이라 하였다. 즉, 謝士泰의 『刪繁方』은 舊本의 本草書에 인용된 부분을 “再引用”한 것이다.
- 51) 『普濟方』 : 명초 宗室 周定王 朱橚의 주관하에서 賤碩, 劉醇 등의 醫官이 전대의학방서를 모아서 편찬한 것이다. 1403-1424년간(永樂 연간), 모두 168권(『明史藝文志』에 “六十八卷”이라고 하였는데, 앞에 “一百” 두 자가 빠진 것이다)인데, 의학 각과를 종합

이 외의 책들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설사 보인다고 해도 제차, 삼차 인용된 부분들이므로 별로 의미가 없다.

9. 『刪繁方』의 목차

목차 혹은 목록은 한 책의 강령이다. 목록으로부터 작가가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어떤 의도로 책을 기획하고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산출된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및 차례의 구조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아서 상세히 고찰할 수는 없으나, 다만 『外臺秘要』과 『千金方』 및 『醫心方』에 인용된 유실문을 근거하여 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卷一. 상고할 수 없음.
- 卷二. 霍亂嘔吐, 虛寒肺痿, 大腸熱實, 大腸虛寒 등.
- 卷三. 霍亂, 轉筋, 髓虛實, 皮虛實, 肛門閉塞, 脫肛, 雜療治 등.
- 卷四. 霍亂瀉泄, 三焦病, 諸痢, 臍府實熱 등.
- 卷五. 咳嗽膿血, 肺熱上氣, 癰羸瘡 등.
- 卷六. 諸瘡, 鬼擊 등.
- 卷七. 五臟勞論(肝心脾肺腎의 寒熱虛實) 등.
- 卷八. 六極論(筋脈肉氣骨精의 寒熱虛實) 등.
- 卷九. 五疰, 虛汗, 癢瘍, 癰疽, 發背, 諸瘻, 漆瘡, 火丹 등.
- 卷十. 溫病, 黃疸, 五尸, 尸疰, 中惡, 沙蟲, 馬骨刺 등.
- 卷十一. 胃虛寒 등.

하여 분류하고 편찬한 것으로, 모두 1960년, 2175쪽, 7781면, 61739방, 239도이다(사고전서제요에 근거). 청나라 초기에 『四庫全書』를 편성할 때 426권으로 개편하였다.

52) 표제어 2조문, 부가어 9조문 등장하며, 『千金方』 인용 7조문, 『外臺秘要方』 인용 4조문이며, 약간 추가된 것도 있지만, 송신의 교주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책을 참고했다고 본다.

상술한 외에도 또한 天行, 五官疾病, 小兒病, 五臟蟲, 五絕死, 飲食物中毒, 金瘡, 服石(禁忌), 癰疥, 癰癤, 陰痒, 齧齒, 息肉, 狐臭, 服藥節度 등 권차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현재는 상고할 수 없다. 그 외에 한 조문에서 “出第十七卷中”(五痔)라고 하고, 한 조문에서는 “出第二十九卷中”(痢論)라고 하였는데, 잘못 옮겨 쓴 것으로 의심된다.

이 목차를 비슷한 연대에 책이 만들어진 『肘後備急方』⁵³⁾, 『劉涓子鬼遺方』, 『小品方』, 『集驗方』 등 어느 정도 복원이 된 책의 목차와 비교해 본다면⁵⁴⁾ 이 책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듯하다. 현재 확보된 목록만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刪繁方』은 『肘後備急方』에 비해 “備急”보다는脾胃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소화기계의 치료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臍腑의 虛勞傷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다. 아울러 『小品方』의 목록⁵⁵⁾과 비교하면 그 권차나 비슷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刪繁方』이 臍腑의 虛損에 대해 실제 임상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 處方을 뒷받침하는 당시로서는 규범화된 臍腑에 관한 醫論을 삼고 있었으므로, 그 후 본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은 세 문헌들에 대량으로 기재되었고, 송대 校正醫書局에서도 교정의 자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III. 結 論

본 연구는 과거의 문헌에 대한 수집 및 재편집

53) 최근 尙志鈞이 복원하여 『補輯肘后方』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尙志鈞, 補輯肘后方,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6)

54) 『外臺秘要方』引用文獻考略(高文鎰,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pp. 962-972.)에서 『外臺秘要方』에서 인용한 南北朝시기의 문헌들에 대해 대략적인 목차를 살펴볼 수 있다.

55) 『中醫學術史』(嚴世藝 主編,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pp. 187-190.)에 좀 더 자세한 목록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복원작업이 추가되는 연구이다. 이는 현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연구되며, 모아서 복원한 원형의 자료를 통해서 원래 그 문헌이 성행했던 시기의 문화가 어떤 특징적 모습들을 띠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黃帝內經』을 기본으로 하는 原典學 연구에 있어서, 『內經』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王冰의 『次注黃帝內經素問』과 동일 시대에 정리된 문헌인 『外臺秘要』를 비교해 보는 작업은 『內經』이 가진 원래의 모습을 탐구하는 한 방편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外臺秘要』에 인용된 『刪繁方』은 현재 비록 실전된 책이지만, 北宋代 嘉祐 연간(1056~1063)에 송대 校正醫書局에서 『外臺秘要』를 비롯한 『千金要方』, 『千金翼方』 등의 의서들의 인용과 교감의 자료로 쓰인 문헌으로, 여기에 기재된 醫論들은 현재 이해되는 『黃帝內經』의 醫論들과 동일한 사상적, 역사적 궤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刪繁方』의 서지학적 연구 성과들을 짚어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刪繁方』의 저자인 “謝士泰”는 증명할 만한 사료가 없으며, 평생의 년도를 상고할 길이 없고,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면 아마도 “齊派” 의가에 속하는 南北朝時期的 사람이다.
2. 『刪繁』의 명칭과 뜻은, 번잡한 것을 깎아내고 간략함을 취한다는 뜻이며, 저작시기는 보통 六朝시대 후기로 생각된다. 그리고 北齊에서 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3. 『刪繁方』은 醫論이 있고 處方이 있어서, 理論과 治法을 모두 중시하였다.
4. 이 책의 권수에 관해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 10권 전후로 보인다.

5. 목차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刪繁方』이 臟腑의 虛損에 대해 실제 임상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규범화된 臟腑에 관한 醫論을 신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송대 校正醫書局에서도 교정의 자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원전류

1. 王燾, 宋版 外臺秘要方 上下, 東洋醫學善本叢書 第四冊, 大阪, 東洋醫學研究會, 1981.
2. 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3. 王燾 著, 高文鑄,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4.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5.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6. 孫思邈, 孫真人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7. 丹波康賴, 醫心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8. 丹波康賴 撰, 高文鑄 等 校注研究,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9. 丹波康賴,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10. 劉涓子(晉) 著, 龔慶宣(南齊) 編, 劉涓子鬼遺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1.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2. 尙志鈞, 補輯肘后方,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6)
13.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저술류

1.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2. 廖育群, 傅芳外 著, 朴炫局 外 譯, 中國科學技

- 術史, 서울, 一社, 2003.
3. 賈得道, 中國醫學史略,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03.
 4.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5. 嚴世藝 主編,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6. 段逸山, 『素問』全元起本,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1.
 5. 高文鑄, 醫心方引用文獻考略,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6. 金南一, 의안이란 무엇인가, 韓醫學 역사기행, 醫林 5月(No. 309), 서울, 의림출판사, 2004.
 7. 王昭迎, 金容辰 外, 宋代校正醫書局에 대한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vol. 16(1), 서울, 韓國醫史學會, 2003, pp137-160.
 8. 蘇禮, 『千金要方』所引扁鵲佚文及其學術價值, 醫古文知識 No. 55期, 上海, 上海中醫藥大學, 1997, pp29-30)

자료 및 사진류

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92.
2. 朴贊國 主編, 東洋醫學大事典,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3. 九五國家重點電子出版物規劃項目, 中華醫典,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http://www.tcm-encyclopedia.com>)
4. 四庫全書 檢索(董汲, 腳氣治法總要)
5. 네이버검색(<http://www.naver.com/>)
6. 小曾戶洋, '宋版『外臺秘要方』所引書名人名等索引, 東洋醫學善本叢書 第八冊, 大阪, 東洋醫學研究會, 1982, p220.
7.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8.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논문류

1. 小曾戶洋, '宋版『外臺秘要方』의 書誌について, 東洋醫學善本叢書 第八冊, 大阪, 東洋醫學研究會, 1982.
2. 高文鑄, 外臺秘要方文獻研究,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3. 高文鑄, 『外臺秘要方』引用書日文獻考略,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4. 高文鑄, 醫心方文獻研究,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